

“아유 레디 투 고?”

(Are you ready to go?)



최충희 (작가)

미국 세인트루이스 한인장로교회에서 사모로 섬기다가 2000년 미주 교양지 《광야》에서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현재는 은퇴한 남편과 함께 영구 귀국해 여수에서 살면서, 전남대 평생교육원에서 심리치료를 공부하며 상처 입은 이웃들을 섬기고 있다.

“여보, 난 준비 다 됐어요!”

남편은 샤워실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외칩니다. 때로는 아침 잠에서 깨면서부터 “난 다 준비했어요”라고 잠꼬대하듯 웅얼거리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제가 남편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나갈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이지요. 남편과 함께 심방을 가거나 외출을 할 때, 일단 남편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제 마음은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대체로 여자들의 외출 준비는 남자들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알뜰게도 자기 준비만 끝나면 ‘난 준비 다 됐어요’를 외치며 차에 올라

타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부르릉거리는 시동 소리를 들으면 저는 더욱 다급해집니다. 전깃불을 끄고, 여기저기 널려진 옷가지들을 제자리에 걸어 놓고, 가져갈 물건들을 챙기면서, 코에 땀이 배도록 한바탕 부산을 떨고 나서야 험레벌떡 차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르다 보니 챙겨야 할 물건을 놓고 와서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할 경우도 생기곤 한답니다. 그러면 저는 미안한 마음에 오히려 남편에게 이렇게 구시렁거리게 되지요.

“봐요! 당신이 너무 서두르니까 물건을 자꾸 잊고 오게 되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 몸만 속 빠져 나올까? 뒷정리 같은 건 자기가 좀 하면 안 되

나?”

이렇게 남편과 함께 외출할 때 저의 스트레스는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편이 애용하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신앙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갈 준비가 다 되었다!’ 갈 준비를 끝낸 사람. 떠날 준비를 마친 인생... 어느 날인가, 예측하지 않았던 날에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주님, 저 갈 준비 다 됐어요”라고 대답하며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맞게 될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어느 날, 정말로 제게 찾아온 것입니다.

“떠날 준비 되었니?” 저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6년 전 일입니다. 허리 근처에 통증이 있어 중년들이 흔히 겪는 요통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걷기 운동도 하고 가벼운 스트레칭도 하면서 낫기를 기대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통증은 심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누워 잠을 잘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고 말았지요. 물리치료를 받는데도 통증이 점점 악화되자 저는 근처 병원에 찾아가 엑스레이와 MRI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과정 중, 척추에 의심될 만한 흔적이 여러 군데 보인다고 빨리 혈액검사를 해 보라는 병원 측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침 그 병원의 연구 교수인 의사 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분께서 미리 사진을 봐주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 분으로부터 뼈 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 몸 어디선가 시작된 암이 척추까지 전이되어, 길어야 6개월을 못 넘긴다는 믿기지 않는 사망선고

였습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내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에 묘한 기분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나름 침착해 보려고 애 써보기도 했지만 가슴이 쿵쿵거리고 밤에는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보다는 앞으로 찾아올 육체적 고통이 더 무섭고 제 마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MRI 사진을 찍고 나오던 날, 병원 문 앞에서 마주친, 창백한 환자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잠깐 마주쳤지만 텅 빈 듯한 그 공허한 눈빛... 한쪽 다리 절반이 잘려져 나가고, 그 대신 가느다란 철제 심을 박은 그 환자의 잔영이 뇌리에 남아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는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교회 식구들에게 유서를 썼고, 옷장과 사진첩 등 주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주변을 정리하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 있더군요. 그것은 이 땅 살림은 하나님 나라인 저 땅에서는 하나도, 정말 한 가지도, 가치 있고 유용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저 땅에서는 이 땅의 것들이 필요 없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 1:2)라고 고백한 전도서 기자 솔로몬의 고백이 제 안에서 절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허무하고 허탈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허무감을 넘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그 무엇이 제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치 있고 진귀한 보석은 바로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이셨습니다!

거룩하신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설 때, 제게 필요

한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저는 그 순간처럼 확실하고 명료하게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이 깨달음을 머리와 입술로만이 아닌 제 모든 존재로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순간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욕심 냈던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용지물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하나! 예수님 만이 제게 필요한 분임을 이토록 절절하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서지고 먼지가 될 이 질그릇 같은 인생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수투성이인 제 인생이지만 저는 제 인생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만족합니다! 제가 살았던 인생은 진실로 행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제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자랑할 것도, 남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둔 인생도 아니지만, 제 가치가 바로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도록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부른 찬송이 바로 시편 기자의 찬송.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시 63:3)라는 찬송 시였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이 찬송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 저를 낮게 하시거나, 혹, 지금 바로 데리고 가신다 해도 그 어떤 경우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선하다는 고백을 드리는 제 영혼은, 이미 안식과 평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은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은 밖에서 시동을 걸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아직 정리되지 못한 영혼의 살림살이 때문에 당황하고 이겁고 두려운 마음을 가누지 못하며 불안하게 떠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난 준비 다 됐어요!”를 외치는 남편처럼, 우리도 한밤 중이든 새벽이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 주님! 준비 됐습니다”라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시 90:4-6).

